

‘동계 패럴림픽 역대 최대’ 2,780분 편성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 패럴림픽이 열흘 간의 뜨거웠던 열전을 끝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KBS는 이번 패럴림픽에서 1TV와 2TV를 합해 총 2,780분에 이르는 방송 시간을 편성해 개·폐막식과 우리 선수들이 출전하는 경기를 생중계하고, 주요 경기를 하이라이트로 중계방송했다. 2022년 베이징 대회의 1,110분은 물론 우리나라에서 열린 2018 평창 동계 패럴림픽 때의 2,155분보다도 많은 동계 패럴림픽 역대 최대 편성 기록이다.

KBS는 1·2TV 외에도 유튜브 ‘KBS 스포츠’ 채널과 KBS의 무료 OTT 서비스 ‘KBS+’를 통해 실시간 스트리밍과 VOD 서비스를 제공했다. 또 자회사인 ‘KBS N’ 채널에 재방송을 대폭 편성해 시청자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동계 패럴림픽을 즐길 수 있게 했다.

‘독점’ 넘어 ‘상생’...영상 활용 무제한 허용

KBS는 이번 동계 패럴림픽의 국내 독점 중계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더 많은 국민이 마음껏 경기를 즐길 수 있도록 중계권 사용 문턱을 획기적으로 낮췄다. 네이버와 숲(SOOP, 구 아프리카TV) 등 디지털 플랫폼에 방송권을 재판매해 시청 채널을 확대했고, 무엇보다 경기 영상 사용 시간과 프로그램 종류를 엄격하게 제한했던 지금까지의 관행을 뛰어넘어 유튜브 영상 업로드를 포함해 사실상 무제한으로 영상을 활용할 수 있게 했다.



동계 패럴림픽의 환희와 감동

KBS가 함께했습니다!

또한, 지상파 방송은 물론 뉴스 전문 채널과 종편 등 다른 방송사 뉴스에도 경기 영상과 선수단 인터뷰를 폭넓게 제공했다. 올림픽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낮았던 패럴림픽의 위상을 높이고,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의 피땀 어린 노력을 더 널리 알리겠다는 공영방송의 결단이었다.

‘보편적 시청권’ 보장 통해 수신료 가치 실현

KBS는 장애인 스포츠 경기 편성을 확대해달라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독점 중계권’ 대신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는 선택을 했다. 이를 통해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노력했다. KBS 중계방송을 지켜본 시청자들은 “생중계 좋아요. KBS 칭찬해”, “KBS가 하니까 역시 다르네요”, “KBS 그리웠습니다. 팀 코리아 파이팅!”, “확실히 중계 퀄리티가 다르네요. 전문성을 갖춘 중계가 이렇게 퀄리티 차이를 보이네요”, “이게 진짜 공영방송이긴 해!” 등 댓글로 아낌없는 격려와 응원을 보냈다.



2TV 새 미니시리즈

심면연리리

능력 하나로 대기업 부장 자리까지 오른 성태훈. ‘잘 나가던’ 그는 농촌 ‘연리리’로 발령이 나는데...

3월 26일(목)부터 매주 목요일 밤 9시 50분 방송되는 KBS 2TV 새 미니시리즈 <심면연리리>는 하루 아침에 연리리로 뚝 떨어진 ‘쫄도시인’ 성태훈 가족이 서울로 돌아가기 위해 고군분투, 좌충우돌하는 무궁해 힐링 드라마다.

배우 박성웅이 가족에 넘치는 ‘K-가장’ 성태훈 역을 맡았다. 자연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는 성태훈의 변화를 위트있게 그리며 웃음과 감동을 선사한다. 바쁜 남편을 대신해 세 아들을 홀로 키워낸 아내 조미려 역은 이수경 배우가 연기한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슈퍼맘’ 면모를 보여줄 예정이다.

연리리 이장 부부 임주형(이서환)과 남혜선(남권아)은 성태훈 가족과 사사건건 부딪치는 앙숙 관계로 극에 활력을 불어넣고, 임주형의 외동딸 임보미(최규리)와 성태훈의 장남 성지천(이진우)은 로맨스를 꽃피우며 ‘연리리판 로미오와 줄리엣’을 예고했다.

<24시 헬스클럽>을 공동 연출한 최연수 PD와 <결혼하자 맹꽁아!>의 송정림 작가, <연애 빠진 로맨스> 왕혜지 작가가 의기투합했다. 최 PD는 “저마다의 사연을 가진 인물들이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찾아가는 과정을 재미있게 풀어나갈 예정이다. 일상에 지친 시청자들에게 따뜻한 웃음과 공감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3월 26일(목) 밤 9시 50분 첫 방송 **KBS2**



“AI는 필수 인프라... ‘도약의 해’ 만들 것”

박장범 KBS 사장이 “AI는 유행이 아니다. 더 빠르고 정확하며 깊이 있는 공영 저널리즘을 위한 필수 인프라”라며 “KBS의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려 올해를 ‘도약의 해’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박장범 사장은 3월 4일(수)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열린 ‘공사 창립 53주년 기념식’에서 “지난해 저는 이 자리에서 ‘AI 원년’을 선포하며 KBS의 변화 방향을 말씀드렸다. 이제는 그 변화를 성과로 증명할 시간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KBS AI 혁신 비전은 ‘효율’, ‘창의’, 그리고 ‘신뢰와 공공’이다.”라고 소개했다. 박 사장은 “단순하고 반복적인 일은 AI에 맡기고, 우리는 한계를 넘어서는 고품질 콘텐츠 제작에 집중해야 한다. 시청자가 체감할 수 있는 진정한 공익적 가치를 실현해 나가자.”고 주문했다.

박 사장은 “올 하반기에는 정통 대하드라마 <문무>가 방영된다. 깊이 있는 서사와 밀도 높은 연기로 시청자에게 진한 감동을 선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뮤직뱅크> 글로벌 공연이 지금까지 14개국 16개 도시에서 K-POP의 힘과 KBS 콘텐츠의 저력을 세계 무대에 각인시켰다. 이제 국내를 넘어 세계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경쟁하겠다.”면서, “미국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고, KBS 콘텐츠가 그 중심에서 어떤 가치를 보여줄지 증명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다큐멘터리와 드라마로는 중동과 유럽 시청자에게도 다가가겠다.”며, “단순한 콘텐츠 수출이 아니라 KBS의 스토리텔링, 저널리즘, 그리고 신뢰가 세계로 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장범 사장은 특히 올해 10월 KBS가 의장사 자격으로 주최하는 PBI, 세계공영방송 서울총회와 관련해 “세계 주요 공영방송사들이 서울에 모여 공영방송의 미래를 논의하고, 한류의 출발점이었던 KBS가 공영방송의 새로



운 성공 모델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BBC의 약 10분의 1, NHK의 약 5분의 1 수준에 불과한 적은 수신료로 세계인들이 부러워할 만한 한류 콘텐츠를 생산해 낸 KBS 직원들의 뛰어난 저력을 전 세계 공영방송인들이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박 사장은 “지난 53년은 단순한 세월이 아니라 국민과 함께 쌓아온 신뢰의 역사”라며 “올 한 해 국민의 삶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희망과 감동을 전하는 KBS를 함께 만들어가자.”고 독려했다.

공사 창립일(3월 3일)을 맞아 KBS는 그동안 회사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신상훈 한국여자농구연맹(WKBL) 총재, 이선형 KBS미디어텍 콘텐츠 제작부장, 이재훈 KBS시큐리티 보안운영부 차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2026 세계공영방송 서울총회 준비 본격화



료라는 한정된 재원으로 KBS가 어떻게 이러한 성과를 이뤄왔는지 해외 방송사들이 주목하고 있는 만큼, KBS가 그동안 거뒀은 성과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공영방송으로서의 위상을 국민에게 알리고, 이를 잘 보여줄 수 있는 멋진 행사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2026 세계공영방송(PBI, Public Broadcasters International) 서울총회’ 개최를 위한 준비위원회 출범식이 3월 6일(금)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열렸다. 이번 총회는 ‘전통과 문화 부흥을 위한 공영 미디어의 역할’을 주제로 10월 14일(수)부터 16일(금)까지 여의도 ‘페어몬트 엠베서더 서울’에서 열린다. 영국 BBC, 일본 NHK 등 약 40개국 공영방송 대표와 국제 미디어 기구의 수장 등 약 30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KBS는 이번 총회를 ‘문화 외교형 국제행사’로 추진하고자 국립중앙박물관과 방송 아카이브 특별전 등을 논의 중이다.

박장범 KBS 사장은 <겨울연가>와 <태양의 후예>, <뮤직뱅크 월드투어>를 언급하며 “한류의 시작은 KBS다. 45년간 동결된 수신

KBS 전국동시지방선거 보도 자문단 출범



리서치 여론조사 부문장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자문단은 앞으로 선거 보도 준칙 관련 자문과 선거 기간 뉴스 모니터링 등의 활동을 진행한다. 박장범 KBS 사장은 “공정하며 객관적인 선거 보도로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을 돕는 공영방송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BS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보도 자문단이 출범했다. KBS는 2월 27일(금)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위촉식을 열고 윤종빈 한국정치학회 회장(명지대학교 교수), 정성은 한국언론학회 회장(성균관대학교 교수), 김경수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최관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변인, 김춘석 한국

KBS, 한국방송기자대상 2관왕

KBS가 방송기자연합회와 한국방송학회가 선정하는 제 17회 한국방송기자대상 2개 부문을 수상했다. 우한울, 오정현, 김민준 기자의 <시사가획 창 ‘2216편 추적보고서’ 2부작>은 기획보도 부문 상을 받았다. 심사단은 “무안공항 사고에서 사라진 약 4분의 시간 동안 발생할 수 있었던 모든 가능성을 치밀하게 추적했고, 수사기관의 한계를 넘어서는 집요한 취재와 분석이 돋보였다.”고 평했다. 신봉승, 고흥석, 선상원 기자는 <우크라이나 이펙트 2부작>으로 보도영상 부문을 수상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참혹한 현실과 드론이라는 새로운 전쟁 양상을 영상으로 효과적으로 담아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시상식에 이어 열린 방송기자연합회장 이·취임식에서 KBS 박경호 기자가 제14대 방송기자연합회장으로 취임했다.

“여러분이 진정한 대한민국의 영웅입니다!”

생애 첫 패럴림픽 경기에서 4위. 사격에서 실수가 뺏아왔다. 시상대 문턱에서 아쉽게 놓친 메달. 그런데도 얼굴엔 미소가 한가득이었다. “내일 경기에서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이튿날 바이애슬론 여자 스프린트 좌식 12.5km 경기. 더는 실수도, 실패도 없었다. 19살 김윤지는 보란 듯이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동계 패럴림픽 사상 최초의 여자 선수 금메달이자 역대 원정 동계 패럴림픽 첫 금메달이며 올림픽·패럴림픽을 통틀어 대한민국 최초의 바이애슬론 메달이다.

첫 패럴림픽에서 ‘금빛’ 새 역사…“엄마! 나 금메달 땀어!”

가슴 졸이며 중계방송을 지켜보던 이들은 금메달이 확정되는 순간 맛글로 벅찬 감격을 쏟아냈다. “김윤지 선수 금메달. 인간승리. 눈물 나네요 ㅠ ㅠ”, “너무 고생했어요~ 보는데도 힘든데 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을지!! 축하드립니다!!!”, “선수, 코치진 모든 분들께 축하와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위대하고 감격스러운 순간입니다 ㅜㅜ” 늘 밝게 웃는 모습 덕분에 ‘스마일리(Smily)’라는 별칭으로 불리는 김윤지. 방송 카메라 앞에서 활짝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엄마! 나 금메달 땀어!”



눈물을 환호로 바꾼 스노보더 이제혁의 ‘값진 동메달’

4년 전 베이징 동계 패럴림픽. 경기를 마친 한 선수가 방송 카메라 앞에서 연신 울먹였다. “눈물이 너무 나서… 짧다면 짧은 2년, 준비 열심히 했는데, 너무 못해서 아쉽고…” 그 뒤로 뼈를 깎는 절치부심 끝에 다시 패럴림픽 무대에 선 한국 장애인 스노보더의 간판 이제혁. 피와 땀과 눈물로 채운 4년의 노력은 헛되지 않았다. 이제혁은 스노보더 크로스 남자 하지 장애 결선에서 세 번째로 결승선을 통과하며 당당히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한국 장애인 스



노보더 사상 첫 메달이다. 이제혁의 ‘깜짝’ 활약은 이번 대회 목표였던 ‘금1, 동1’을 일찌감치 달성한 우리 대표팀의 사기를 한껏 끌어 올렸다.

시각장애 스키 기대주 최사라의 ‘이유 있는 성장’

알파인스키 활강 종목 출발선에 나란히 선 두 사람. 하지만 둘은 경쟁자가 아니다. 한 명은 시각장애 스키 선수, 다른 한 명은 비장애인 ‘가이드 러너’다. 가이드 러너가 앞에서 목소리로 안내하며 뒤따라오는 선수의 눈이 돼 준다. 주인공은 우리 대표팀의 최사라 선수와 어은미 가이드 러너다. 경기 최종 성적은 4위. 메달권과 불과 1.58초 차였다. 둘은 이후 슈퍼대회전 경기에서 5위를 차지했다. 4년 전 베이징 대회에서 회전 10위, 대회전 11위를 기록했던 최사라는 어은미와 함께한 뒤부터 몰라보게 기량이 향상되며 한국 알파인스키의 기대주로 성장했다. 도전은 함께이기에 더 빛났다. 오직, 패럴림픽만이 선사하는 진한 감동이다.

‘젓잘싸’ 휠체어컬링 16년 만에 ‘은메달’ 쾌거

마지막 8엔드에서 경기가 그대로 끝날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우리 대표팀의 뒷심은 무서웠다. 막판에 극적으로 동점을 만들며 승부를 연장으로 몰고 갔다. 이번 패럴림픽에서 처음 정식 종목이 된 휠체어컬링 믹스더블 결승전에서 백혜진·이용석 선수가 중국과 연장 접전 끝에 귀중한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휠체어컬링에서 나온 16년 만의 메달. ‘젓지만, 잘 싸웠다.’는 말이 조금도 아깝지 않은 짜릿한 명승부였다. 이로써 다섯 번째 메달을 수확한 대한민국은 장애인 동계스포츠의 변방에서 강국으로 우뚝 섰다.



“보편적 시청권 대상은 비장애인 스포츠만이 아니어야”

패럴림픽 주요 경기를 현지에서 생중계한 KBS의 이재후 아나운서는 개막식 중계방송을 마치면서 뼈 때리는 클로징 멘트를 남겼다. “스포츠를 구성하는 요소 중에서 공정함이라는 것은 빼놓을 수 없는 가치이자 불변의 원칙입니다. 그 공정함은 스포츠 중계방송에도 적용돼야 마땅합니다. 중계방송의 불평등은 스포츠의 가치와 원칙을 훼손한다고 생각합니다. 보편적 시청권이 보장하는 대상은 비장애인 스포츠만이 아니어야 합니다. 이번 KBS 한국방송의 패럴림픽 중계방송이 우리 사회가 한층 더 따뜻한 공동체로 나아가는 마중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KBS·KBS미디어·알타바

‘AI×버추얼 DJ’ 공동 개발한다

KBS와 KBS미디어, 가상 엔터테인먼트 기업 알타바(ALTAVA)가 3월 10일(화)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AI 기반 라디오 가상 DJ를 중심으로 한 새 라디오 프로그램을 공동 기획·제작하기로 했다.

세 회사는 AI 기반 가상 DJ 개발은 물론 해당 캐릭터가 고정 진행자로 참여하는 KBS의 새 라디오 프로그램을 공동 제작한다. 또 가상 DJ 명의의 음원 발매와 IP 세계관 구축, 가상·실제 공연, 팬덤 플랫폼 연계와 굿즈 판매 등 다양한 수익 모델 창출에도 긴밀히 협력할 예정이다.



KBS 쿨FM 89.1MHz

잘 나가네~

“요즘 ‘진격의 쿨FM’이라고 불려요.”

KBS 쿨FM(89.1MHz)이 분기별로 진행되는 2026년 1차 라디오 청취율 조사에서 점유청취율 16.1% (이하 청취율)를 기록하며 전체 3위에 올랐다. 지난해 말보다 한 계단 상승했다. ‘음악 FM’ 채널 중에선 유일하게 청취율이 올라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라이징3 프로젝트’의 결실

쿨FM의 거침없는 질주 뒤에는 1년 6개월간의 치열한 고민과 노력이 있었다. 2024년 하반기 시작된 라이징3 프로젝트는 ‘청취율 전체 3위, 프로그램 TOP10 3개 진입’이라는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출발했다. 쿨FM 김홍범 총괄 프로듀서(CP)는 “핵심 시간대 집중적으로 텐트폴 프로그램(청취율을 견인하는 인기 프로그램)을 키우고, 채널 단위 업무 효율화와 주요 청취층 공략을 위한 전담팀 운영 등 세밀한 전략을 세워 실행했다.”고 말했다. 작년부터 꾸준히 상승 곡선을 그리던 청취율은 1년 새 3.4%p 올랐고, 올해 전체 3위 목표를 달성했다. 김홍범 CP는 “PD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 열심히 해줬기에 가능했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역대 최초 3개 프로그램 TOP10 진입

프로그램별 청취율 순위에서는 〈FM대행진〉, 〈사랑하기 좋은 날〉, 〈음악앨범〉까지 쿨FM 사상 최초로 3개 프로그램이 TOP10에 이름을 올렸다. 먼저 최장수 아침 라디오 프로그램의 명성을 이어가고 있는 〈FM대행진〉이 6위(6.1%)를 차지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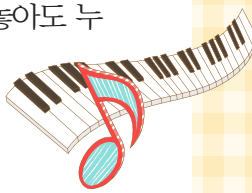
다. 활기찬 에너지를 자랑하는 DJ 조정식의 진행으로 출근 시간(오전 7~9시) 견고한 팬층을 형성하며 쿨FM 청취율을 견인 중이다. 이어서 〈사랑하기 좋은 날〉, 〈음악앨범〉이 각각 7위(5.7%), 10위(5.1%)에 자리했다. 오후 6시부터 두 시간, 퇴근

길을 보듬는 이금희 아나운서의 〈사랑하기 좋은 날〉은 지난 분기보다 청취율이 1.8%p 올라 반등에 성공했다. 오전 9~11시에 방송되는 이현우의 〈음악앨범〉은 방송 이후 최고 성적을 달성했다. 아침과 저녁 시간대의 고른 성과는 쿨FM의 존재감을 확고히 했다.

장수 프로그램의 고공행진

〈사랑하기 좋은 날〉과 〈음악앨범〉의 경우 2007년부터 18년 동안 DJ 한 명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개그맨 윤정수와 남창희가 진행하는 〈미스터 라디오〉는 7년 동안 쌓아온 찰떡 호흡을 선보이며 역대 최고 성적(4.0%)을 유지 중이다. 7주년 특집 방송에서는 청취자 ‘미라클(애칭)’을 스튜디오로 초대했다. DJ들은 “미라클과 함께하는 이 순간이 기적”이라며 고마움을 전했고, 청취자들은 “오후 4시를 책임져줘서 고맙다”, “딱 70년만 더 하자” 등 축하 메시지를 남겼다. 11주년을 맞은 박명수의 〈라디오쇼〉도 세대 불문 꾸준한 인기로 주말 청취율 상승의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김홍범 CP는 “20대 이하 청취자가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채널 활성화에 힘쓰고 사연 선정에서도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담으려 한 점이 젊은 청취자 유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 같다.”며 “쿨FM이 하루 종일 틀어놓아도 누구나 편하게 들을 수 있는 채널이 됐으면 한다. 현재 ‘음악 FM’ 청취율 2위인데, 1위를 향해 나아가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1TV 새 일일드라마 기쁜우리 좋은날

외모, 능력, 재력 모든 걸 가진 완벽남 ‘고결’과 열정 만렙 AI 개발자 ‘조은애’. 티격태격 예측 불가 로맨스가 펼쳐진다!

3월 30일(월) 저녁 시작되는 KBS 1TV 새 일일드라마 〈기쁜 우리 좋은 날〉은 두 주인공의 갈등을 중심으로, 저마다 인생의 주인공이 되고 싶은 다양한 세대의 이야기를 풀어낸다. 배우 윤종훈이 맡은 ‘고결’은 ‘강수 토건’의 유능한 건축사이자 ‘강수그룹’ 후계자 레이스에 뛰어든 이성적인 인물이다. 배우 엄현경이 연기하는 조은애는 AI 스타트업 ‘럭키조이’의 에너지 넘치는 개발자 겸 공동대표로 강수 토건에 빼앗긴 회사를 되찾기 위해 분투한다. 악연과 인연을 오가는 두 사람의 곁에 고결의 형 고민호(정윤)와 고결을 짝사랑 해온 서승리(윤다영)까지 사각 관계를 이루며 시작부터 휘몰아치는 전개가 예고됐다.

강수 토건 사장인 고대치(윤다훈)와 고교 동창인 조성준(선우재덕), 서권식(정호빈)은 세월을 넘어 갑을 관계의 위치에 놓이며 드라마의 또 다른 중심축을 이루고, 배우 김혜옥, 문희경, 이상숙, 이호재, 정영숙 등 관록 있는 배우들이 극에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이다.

〈기쁜 우리 좋은 날〉은 〈한 번 다녀왔습니다〉, 〈아버지가 이상해〉 등에서 섬세한 연출력을 인정받은 이재상 PD와 〈수지맞은 우리〉에서 트렌디한 필력을 뽐낸 남선해 작가가 손을 잡았다. 이 PD는 “다채로운 세대의 현실 공감 가족 이야기와 그 속에서 피어날 주인공들의 특별한 로맨스를 기대해 달라.”고 전했다.

▶ 3월 30일(월) 저녁 8시 30분 첫 방송 **KBS1**